

NFL 구영희, 올스타 팬투표 중간 집계 키커 전체 1위

미국프로풋볼(NFL) 무대에서 뛰는 한국인 키커 구영희(26·애틀랜타 팰컨스)가 첫 올스타전 프로볼 출전 꿈을 키우고 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영희는 이날 NFL 사무국이 발표한 프로볼 팬투표 중간 집계에서 7만5천673표를 받았다. 이는 애틀랜타가 속한 내셔널풋볼콘퍼런스(NFC) 키커로는 1위이자 아메리칸풋볼콘퍼런스(AFC)로 범위를 넓혀도 키커 포지션 최다 득표이며 AFC 1위인 로드리고 블랭켄십(4만4천865표·인디애나폴리스 콜츠)보다 월등하게 많은 득표를 기록하고 있다.

구영희는 이달 17일까지 진행될 팬 투표에서 1위를 지키면 커리어 처음으로 프로볼 무대를 밟게 된다.

구영희는 소속팀 애틀랜타(4승 7패, 12월 2일 현재)의 성적 부진 속에서도 키커로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구영희의 올 시즌 필드골 성공률은 무려 96%, 리그 톱수준의 키커인지를 가르는 기준인 50야드 이상 필드골에서 성공률은 무려 100%(지난 27일 기준).

구영희는 방출의 아픔을 딛고 재기해 기량을 꽃피웠다.

구영희는 2017년 로스앤젤레스 차저스에서 첫 시즌 4경기에 나와 6번의 필드골 시도 중 3번 성공에 그친 뒤 그해 10월 방출당했다. 와신상담한 구영희는 지난해 10월 30일 애틀랜타와 계약하며 2년 만에 NFL에 복귀했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시즌 8경기에서 필드골 시도 26번 중 23번(88.5%)을 성공하며 재계약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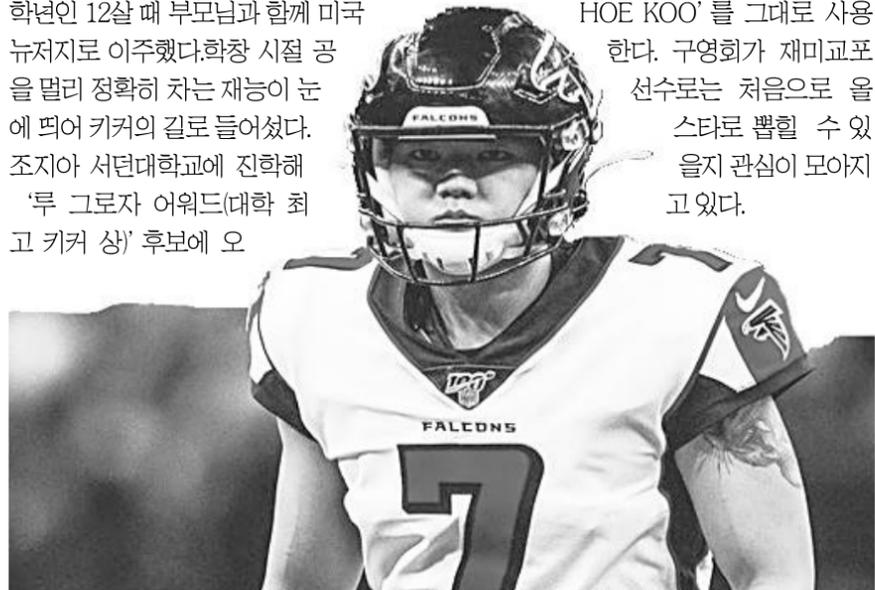
올 시즌에는 일찌감치 하위권으로 추락한 팀 사정 속에서도 구영희는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며 첫 프로볼 입성을 바라보고 있다. 더욱이 구영희는 다른 팀들이 탐내는 특출난 온사이드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프로볼 훈장을 달 경우 주가는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구영희는 서울에서 출생해 초등학교 6학년인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 뉴저지로 이주했다. 학창 시절 공을 멀리 정확히 차는 재능이 눈에 띄어 키커의 길로 들어섰다. 조지아 서던대학교에 진학해 '루 그로자 어워드(대학 최고 키커 상)' 후보에 오

를 만큼 인정받았다.

구영희는 영어 이름이 따로 없다. 한글 이름의 영문 표기인 'YOUNG-HOE KOO'를 그대로 사용한다. 구영희가 재미교포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스타로 뽑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NFL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키커 구영희. 그의 올스타전 출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애틀랜타 인스타그램

큰판 앞둔 LPGA 투어, 한국 선수끼리 1위 경쟁 뜨겁다

시즌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800만 달러가 넘는 큰판을 앞둔고 있다.

지난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LPGA 투어는 이달 11일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을 거쳐 그 다음주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을 피날레로 시즌을 종료한다.

US오픈의 총 상금은 550만 달러,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은 300만 달러로 2개 대회 총상금만 850만 달러에 달한다. 우승 상금

은 US오픈이 100만 달러,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은 110만 달러에 달한다.

메이저인 US오픈은 올해의 선수 포인트가 2배(우승자의 경우 60점)로 뛰기 때문에 대회 결과에 따라 LPGA 투어 2020 시즌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의 운괘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금과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1, 2위에 올라 있는 김세영과 박인비의 격차는 상금 6만 6,699달러, 올해의 선수 포인트 16점에 불과하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과 2018년 대회 우승자인 박성현도 경쟁에 가담한다.

이런 가운데 US여자오픈은 한국 선수들의 잔치판이 될 전망이다.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존 선수들보다 최혜진과 안나린, 유해란, 임희정 등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출전 선수 151명 중 한국 선수만 26명에 달한다. 한국은 1998년 박세리가 처음 우승 물꼬를 튼 이후 지난해 우승자 이정은6까지 10번이나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US오픈에서 강세를 보였다.

17일부터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부론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은 LPGA 투어에서 가장 큰 우승 상금이 걸려 있는 대회로 지난해 김세영은 LPGA 역대 최고액인 150만 달러의 잭팟을 터뜨렸다. 올해는 우승 상금이 110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40만 달러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LPGA 투어에서 우승 상금이 가장 많다.

US오픈과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결과에 따라 LPGA 투어의 올 시즌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 최저타수상의 주인도 가려질 전망이다.



▲ 지난 1월 LPGA 2020 개막전인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십'에 참가한 김세영(왼쪽)과 박인비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타운뉴스DB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